인터뷰 박 영 선 문재인캠프 공동선대위원장

"호남소외 서운함 있겠지만 문재인 후보 진정성 알아달라"

11월 본격 단일화 논의 "반드시 이뤄질 것"

박영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광주·전남은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서운함이 있더라도 문재인 후보의 진정성을 알게 되면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광주고법·지법과 광주고검·지검 국정감사를 위해 광주를 찾은 박 선대위원장은 광주일보와 단독인터뷰에서 '민주당 문 후보가 안방인 호남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호남분들이 참여정부 때 호남 소외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

▲이번에 단일화 안 되면 1987년 대선 양김 단일화 실패 때보다 더욱 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압력에 의해 반드시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단일화 시기와 방법은.

▲두 후보 서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여 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은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11월에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과 정당·정치개혁 등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실행하면서 단일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일화 경쟁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나.

▲단정할 수 없지만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지율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고 문 후보는 끊임 없이 상승하는 양상이다. 선거에서는 지지율 상승세가 중요하다.

-문 후보의 정치쇄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문 후보가 쇄신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당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것이다. 의지는 있는데도 아직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새로운정치위원장(가칭)'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를 모셔서 함께 발표하고 싶기 때문이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다.

▲문 후보는 선대본부장급 인선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 본부장이 중심이 돼 팀장급 인선을 했다. 그런데 이때 비서실에 친노(친노무현) 핵심인사들이 들어가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문 후보는 "지금까지 해놓은 (쇄신과 통합) 노력을 되돌리는 일이 됐다"며 화를 많아 냈다. 후보 스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인적 쇄신에 애를 쓰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문 후보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과거 동교동계 핵심 7인방의 '임명직 거부 선언'과 같은 친노 핵심세력의 2선 후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친노 핵심인사들의 백의종군 선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 후보 측에서 이렇다할 호남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문 후보가 호남공약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남 출신이라서 거론되는 것 같으나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1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송광석) 제35차 정기총회 및 편집국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지역신문사 사장과 편집국장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이명관 부산일보 사장, 정충견 경남신문 회장,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윗줄 왼쪽부터 권순택 전북일보, 조경완 광주일보, 윤재준 경인일보, 허승도 경남신문, 김윤석 대전일보, 이상훈 매일신문 편집국장, 김창우 강원일보 부국장. /경인일보=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한국지방신문협 정기총회… 대선 공동보도 논의

광주일보를 비롯해 전국 주요 9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송광석 경인일보 사장)는 11일 오후 4시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제 3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9개 회원사 사장과 편집국장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회원사 간 공동 여론조사 기관선정과 방법, 게재일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역별 현안 분석 기사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 취재와 관련해 풀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회원사들은 ABC 부수 공사(公査)를 발행 부수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비합리적으로 높은 ABC협회 회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국감브리핑

안대희·김용준 朴캠프 합류 비판 박지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의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합류를 잇따라 비난했다.

박지원 의원은 11일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그만두자마자 정치권으로 들어온 데 이어 아침에 보니 김영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그렇게(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옮겨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최고의 사법직을 지냈으면 조금 더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다"며 "사법부 최고 수장이 정치권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후배로서 한마디 해달라"고 김용헌 광주고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도 "현직 고법원장으로서 최고 법관이 되거나 헌법재판관이 된 뒤에 정치권으로 가는 꿈을 꿔봤느냐"고 김 법원장에게 물었다.

김 법원장이 당혹스러운 듯 "일반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수확량 떨어지는 간척농지 임대료 일반 수준 김영록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하는 간척농지가 염해로 생산비는 높고, 수확량은 떨어지는데도 농가들에게 받는 임대료는 일반농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화 농식품위 소속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은 1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척지는 아무리 제염시설을 한다고 해도 가뭄이 들거나 하면 염분이 급속도로 높아진다"며 "지난 5월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산강 간척지 내 대규모 농업회사 지역 25곳을 대상으로 토양의 염분농도를 조사한 결과, 0.15% 미만은 9곳에 불과하고, 0.25% 미만은 3곳, 0.25% 이상이 절반이 넘는 13곳이었으며 염분농도가 0.7%가 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0.2~0.3%의 염분 농도하에서는 약 50% 정도가 수확량이 감소하며 비료비는 2배 이상 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농어촌공사에서는 임대 5년차의 간척농지 임대료를 일반 육답의 관행 임대료 수준에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남고속철 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임내현 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서 특정업체를 배제하라는 공문을 보내 결국은 경쟁기업을 밀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자료에서 "감사원까지 동원돼 국제적인 기준도 없는 정적스프링계수 25%를 내세워 특정업체의 부품 독점 공급을 시도한 정황이 나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3차례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배경으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자재공급업체 참여배제 요청공문'을 발송, A사 제품을 공급받는 업체를 궤도공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국가기관까지 동원하여 고속철도의 안전을 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09년 도입 사행산업 총량제도 유명무실 장병완 의원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도입한 사행산업 총량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1일 배포한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행산업 총량규제가 처음 실시된 2009년에는 초과 금액이 3171억원, 2010년 2809억원, 2011년 1785억원 등으로 총 7765억원에 달하는 위반 금액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위반 규모가 가장 큰 강원랜드(2840억원)와 스포츠토토(2297억원)는 매년 총량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그 이듬해 늘어난 매출총량 또한 초과해 총량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또 사행산업 업체들이 지난 3년간 7765억원의 초과 이익을 거두는 동안 사감위가 초과로 징수한 부담금은 400분의 1 수준인 19억 300만원에 불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근린주택

▷동구 소태동 준주거지역 5층상가주택 대지561㎡ 건물1440㎡ 감정가12억4천 최저가8억7천
▷서구 치평동 역세권 5층상가주택 대지230㎡ 건물 716㎡ 감정가7억5천 최저가5억2천

단독주택

▷북구 용봉동 용봉IC인근 2층단독주택 대지160㎡ 건물193㎡ 감정가1억1천3백 최저가7천9백
▷남구 방림동 2종주거지역 단독주택 대지251㎡ 건물152㎡ 감정가1억9백 최저가7천6백
▷남구 칠석동 주거지역 단독주택(전원주택적합) 대지505㎡ 건물140㎡ 감정가1억3백 최저가8천2백
▷장성 황룡면 관리지역 단독주택 대지823㎡ 건물235㎡ 감정가1억1천 최저가7천8백

공 장

▷북구 용전동 대지2315㎡ 건물1543㎡ 감정가22억7천4백 최저가18억2천
▷장성 동화면 대지6300㎡ 건물1365㎡ 감정가14억2천 최저가6억3천5백

토지매매

▷동구 내남동 주거지역 도심근교(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 최상 대지750㎡
▷무안 해제면 계획관리지역 마을내 전망 좋음 전3643㎡ 전3643㎡ 전3643㎡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탑공인중개사

(서구광천동650-205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후문)

광주전역 원룸 매매 전문

서·광산·남·북·동구지역 급매물건 다량확보

1)화정동,화정역세권,4층 대지261㎡건물436㎡ .위치최고,남향,원룸7개,투룸5개,쓰리룸2개,최고급안집,건축3년매5억9천만원(보증금6000만원/월세500만원,안집별도)
2)화정동.화정역세권,4층,대지250㎡.건물435㎡,남향,원룸14개,쓰리룸2개.위치최고,남향,건축1년,매6억5천만원(보증금3억/월세300만원,융자1억1천)
3)쌍촌동,상가주택,1층상가,원룸18개,위치최고,대지260㎡,건물520㎡,대로변.매5억7천만원(보증금4000만원/월세550만원.융자1억5천만원)
4)금호동.먹자골목,4층,원룸,남향,원룸6개,투룸6개,안집,남향,대지270㎡.건물370㎡.매5억7천만원(보12000만원/월세400만원,융자1억3천만원)
5)농성동,신축.4층,원룸,대지325㎡,건물490㎡,원룸6개,투룸8개.최고급편백인테리어안집,남향,매7억9천만원(보증금5000만원/월세500만원,융자2억4천만원)
6)중흥동,전대정문,신축,4층,원룸,1층상가,대지245㎡.건물490㎡.원룸4개,투룸8개,최고급안집,매7억8천만원(보증금6000만원/월세550만원.융자2억,안집별도)
7)용봉동,4층,원룸,대지268㎡,건물401㎡.원룸13개,투룸6개.건축2년,풀옵션,매8억1천만원(보5000만원/월세700만원,융자1억5천만원)건축2년
8)중흥동,신축,4층,대지210㎡,건물410㎡,원룸12.투룸3개.남향,풀옵션,매6억5천만원(보증금3000만원/월세550만원)
9)신안동.4층.원룸,대지260㎡,건물390㎡.남향,원룸12개.투룸6개,남향,건축1년,매6억8천만원(보3억/월450만원.융2억)
10)신가동,4층,원룸,남향,위치최고.대지202㎡,건물385㎡.원룸4개,투룸4개.쓰리룸1개.최고급안집.매4억6천만원(보5000만원/월세260만원,안집별도)

☆매도/매수하실분 상담환영☆
☆비밀절대보장.신속한업무처리☆
☆수익률10%이상물건진행☆
★구인:원룸/상가임대/성실한분모심★

062)368-0789, 010-3671-7145

금당 공인중개사

건물매도

• 오치4거리 대로변 7층건물 대치 819㎡(269평) 건평715평 학원용 건물로 적합 16억
• 대인동 원룸 건물 대지대지42평 4층 건물 95평 안집은 별도 원룸 11개 대출1억2천 매도 2억3천 법인이전함
• 순천시 장천동 4거리 코너 6층 건물 대지88 건평 464 감정가 9억3천만원 매도5억2천만원
• 계림동 재개발지역 2층 주택 대지30 건평 32평 7천만원
• 충장로 슈퍼, 대지 27 건평 30 공시가 1억9200 매도 1억7천
• 시내 LPG충전소 대지 1014 대출 11억5천 매도19억
• 유동 상업지역 요양병원 적합 대지 928㎡(280평)건평 7층 건물6487㎡(1952평) 매도34억
• 동구 제일 오피스텔 28평형 14층 매도 4600만원
• 북구 우산동 대지330평 건평412평 대출6억 보증금 8천에 월세는 900만원선 매도10억 2천

나대지

• 북동 상업지역 300평 원룸-오피스텔적합 7억8천
• 사찰-기도원-농장등 다용도 보성군 율어면 논,밭 2만평 임야 등 25만 5천평 평당8000원(20억4천만원)
• 중흥동 상업지역 166평 3거리 코너 공시지가 4억7천 매도 5억3천
• 계림동 상업지역 155평 공시지가 6억3300 매도 5억
• 공장부지 함평군 해보면 국도접 1725평 2억8천
• 송정리 영광통 4거리 대로변 상업지 267평 병원, 오피스텔등 적합 투자가치 좋음 10억5천

유동4거리 대로변 건물임대

• 2층과 3층 각각135평씩 병원, 의원, 대형사무실, 학원등에 적합 각층을 분리해서도 임대가능 임대조건은 협의바람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고용센터 옆

신한공인중개사

수완지구 상가 분양 임대(특별할인)

• 롯데마트 앞 국민은행, 신한은행 1층~7층 까지
• 분양 임대중 (9월 30일 까지 20% 특별할인)
• 병원, 한의원, 학원 독서실, 헬스, 모든 업종가능

쌍촌동 역세권 개발(운천역 1분 코너)

• 1층~ 6층 상가분양 임대 ▷ 편의점 약국, 커피, 근생시설
• 7층~15층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분양, 임대

신축 원룸매매(5억~20억까지)

조대, 전대, 쌍촌동, 수완지구

• 수완동 수완지구 룸 23개 월수익 900 매가 8억(보5천, 융3억)
• 쌍촌동 운천역 3분 룸 19개(주택, 옥탑방) 월수익 750 매가8억(보5천, 융3억)
• 조대후문 1분 룸16개(주택가능)월수익 650 매가 7억2 (보5천, 융2억5)
• 전대후문 1분 룸14개 월수익 500 매가 6억(보5천, 융1억5)

교환전문, 수익성 상가

3억~100억까지 다양물건 확보

• 상가건물 1층 4칸 6억2천(보8천, 월 380)
• 상가건물 6층 45억
• 상가건물 2층 18억(식당 건물)
• 주차빌딩 건물 1층 11억(보1억, 월600, 융6억) 대형식당가능
• 독서실 임대 룸 100석 월수익 600(보5천, 월250)

010-6670-9800 / 062-952-5524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고물건(상가빌딩매매)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80평 건평 873평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501평 건평 1415평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50평 건평 884평
* 서구 화정동 로마나이트부근 모텔 대지 99평 건평 344평 룸 00실
* 남구 진월동 상가빌딩 대지 620평 건평 2181평
* 북구신안동 전대정문 상가빌딩 대지 156평 건평 600평
* 북구 두암동 동강대후문 원룸 대지71평 건평 98평 방15실
* 광산구 우산동 상가빌딩,웨딩홀 대지 1741평 건평 약4000평
* 광산구 신창동 보건대 부근 대지 630평 건평 460평
* 나주시 남내동 상가빌딩 대지 119평 건평 210평

광고물건(토지매매)

* 상무지구 치평동 대지 1000평
* 서구 서창동 대지 948평
* 북구 두암동 대지 500평
* 광산구 송산유원지부근 대지1010평
* 광산구 수완동 대지 10,737평
* 나주 금천면 원곡리 대지 3,200평
* 나주 왕곡면 옥곡리 대지1,900평

최상의 전원주택 적합 부지 매매

*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지도방향 바닷가부근 대지2,340평
* 장성군 남면 행정리 대지 500평
* 광양읍 덕례리 대지 2,800평

956-6660·010-2139-6255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